논리연구 20-2(2017) pp. 197-239

‘믿음’과 인식적 수용

이 주 한

【국문요약】 일상적 표현의 하나인 ‘믿음’은 다의어로서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그러나 이 표현의 맥락 의존성은 믿음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본 논문은 그러한 철학적 문제들의 해결 혹은 해소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표현 ‘믿음’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의미를 달리하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믿음’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두 심적 태도, 즉, 불수의적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과 심적 행위로서의 실용적 수용 각각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믿음’은 이들 두 심적 태도 외에 필자가 ‘인식적 수용’이라 칭하는 또 하나의 심적 행위를 그 의미의 하나로 가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인식적 수용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서로 경쟁하는 맥락에서 수행되는 이차적인 심적 행위임이 드러날 것이다. 인식적 수용이 어떠한 태도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물음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인식적 수용의 분석 가능성 여부, 판단 행위와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심적 태도들을 구분하는 것이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간단한 전망을 제시한다.

【주요어】 믿음, 실용적 수용, 인식적 수용, 심적 행위, 수의성, 판단

투고일: 2017. 5. 15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7. 6. 21 게재확정일: 2017. 6. 22

1. 도입: 믿음에 관한 비정합성 문제

본 논문은 표현 ‘믿음’이 의미하는 서로 다른 심적 태도들에 관하여 논의한다. 더 정확하게는, ‘믿음’이라는 표현의 서로 다른 의미를 구분하되, 특히 이 표현이 그 의미의 하나로서 필자가 ‘인식적 수용’이라 부르는 심적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믿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진술들을 생각해 보자.

(1) 우주에서 직접 보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믿어진다.
(2) 나는 2에 2를 더하면 4라고 믿는다.
(3) 복지 정책에 관한 그의 공약을 한 번 믿어 보자.
(4) 그녀는 남자 친구가 그녀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5) 낯선 사람의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6) 이 책의 내용은 믿어도 좋다.

이상의 진술들은 모두 믿음이라는 심적 태도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진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위 진술들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태도가 정확히 어떠한 태도인지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령, (3), (4)번 진술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뜻대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인 것처럼 간주된다. 즉, 믿음은 ‘믿어 보기로 결정’하거나, ‘믿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심적 태도인 것 같다. 그런데, (1), (2)번 진술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정확한지 의심하게 된다. 예컨대, 지구가 둥글다는 지각적 믿음이나 2에 2를 더하면 4가 된다는 믿음은 내가 마음 먹는대로

자유롭게 폐기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합적이지 않은 듯한 믿음에 관한 이러한 특징은 결국 수의성 여부에 관한 논쟁, 즉 믿음은 수의적 제어(voluntary control)가 가능한 심적 태도인지 아닌지에 관한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1] 그런데 또 한편, 이상의 현상 외에도, 위에 제시된 진술들은 믿음에 관한 또 다른 문제를 자아낸다. 가령, 진술 (5)와 (6)을 보면 믿음은 모종의 규범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 듯 보인다. ‘믿어서는 안 된다’든가 ‘믿어도 좋다’와 같은 표현은 믿음에 어떤 의무나 명령 같은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일 믿음이 (1), (2)와 같은 진술이 암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종류의 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은 규범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의무, 명령 등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믿음이 수의적인 태도가 아니라면 거기에는 애초에 ‘따른다’, ‘지킨다’, 혹은 ‘어긴다’와 같은 개념 자체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규범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만일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규범은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또 다른 철학적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2]

이상에서 언급된 철학적 문제는 그 각각이 별도의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며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그 논의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필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철학적 문제들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거의 검토되

---

1) Williams(1973), Bennett(1990), Alston(1988), Feldman(2001), Ginet(2001), Hieronymi(2006), Weatherson(2008) 참조.

2) Alston(1988, 2005), Plantinga(1993), Feldman(1988, 2000, 2001, 2008), Steup(2000, 2008), Ginet(2001), Russell(2001), Ryan(2003), McHugh(2012) 참조.

지 않은 채 간과되고 있는 문제 - 그러나 해당 문제들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 - 의 측면을 드러내고 그것을 쟁점화함으로써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믿음에 관련된 여러 현상이나 그를 기술하는 다양한 진술들에 가장 잘 부합하는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인식적 규범의 성격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논의들는 마치 표현 '믿음'이 단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정한 후 믿음의 속성 문제에 바로 뛰어들거나 믿음의 규범성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표현 '믿음'은 우리 언어에서 결코 단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표현 '믿음'에 의해 지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맥락에서 서로 다른 심적 태도일 수 있다. 그런데 표현 '믿음'이 가지는 이 다의적인 성격은 기존 논의들에서 사실상 주목된 바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필자는 앞서 소개된 믿음에 관한 철학적 문제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원인, 즉 '믿음'이 우리 언어에서 다의성(polysemy)을 갖는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이후 논의를 통해 '믿음'이 어떠한 서로 다른 심적 태도들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적어도 세 가지 서로 다른 심적 태도, 즉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과 심적 행위로서의 실용적 수용, 그리고 필자가 '인식적 수용'이라 부르는 또 하나의 종류의 심적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2. ‘믿다’의 다의적 사용: 믿음과 수용

우선,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태도의 많은 것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수의적 제어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앞서 제시된 진술들의 일부 사례가 암시하듯 수학적 진술에 대한 믿음이나 지각적 믿음은 우리가 뜻대로 제어할 수 있는 종류의 심적 태도가 아닌 듯하며, 이러한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 그 외의 다른 종류의 믿음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를 듯 보이지 않는다. 믿음이 적어도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 즉, 의지만을 사용하여 - 수의적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올스톤(W. P. Alston)의 잘 알려진 논문 ‘The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에서 상세히 논증된다. 다음은 그의 논증의 일부이다.

> 이를 위한 나의 논증은, 이를 논증이라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단순히 당신에게 권하는 일이다. 당신은 미국이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라고 믿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리고 이 결심만에 의해, 바로 이 순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만일 이것만으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것을 믿을 경우 누군가 당신에게 5천억을 주고 당신은 진리를 믿는 일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라. 당신은 이 돈을 타내기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기억할 것은 요구되는 일이 의지만으로 이 믿음을 획득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위액의 분비나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에 의지 작용, 결심, 선택과 같은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란] 명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의지 작용, 결심, 선택은 개입되지 않는다. (1988: 263)

올스톤의 이러한 생각은 펠드만(R. Feldman)에게서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 우리는 우리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수의적 제어 능력을 가진다.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일들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나는 바로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며, 무릎을 꿇을 수 있다. 나는 못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귀를 움직일 수도, 혀를 말아 올릴 수도 있다. 믿음을 형성하는 일이 이것들과 같지 않다고 말한 올스톤의 주장은 옳다. 우리는 믿음을 의지에 의해 형성하지 못한다. 어떤 명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질 경우, 전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명제를 반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질 경우, 전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을 경우, 전형적으로 우리는 증거가 지지한다고 보이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점에 있어 올스톤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2001: 80)

이들 논의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믿음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어 능력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가지는 제어 정도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일보다는 기껏해야 위액이 분비되거나 세포가 신지 대사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갖는 정도에 더 가깝게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가지는 이러한 불수의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의 하나는 올스톤이 제안한 것과 같이 수의적 제어가 되지 않는 믿음의 구체적인 경우를 머리 속에 떠올려 보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적 견해가 그러하듯,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이상의 견해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럴듯해 보이는 또 다른 견해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먼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의 경제 형편을 고려할 때 그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우정을 생각해서 일단 그를 *믿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다. 혹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새로 입사한 신입 사원이 업무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의 팀장은 일단 *믿고* 그에게 일을 맡겨 보기로 결정한다. 이들

사례에서 표현 ‘믿다’는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예시된 상황은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선택 혹은 결심을 내리는 일상적인 경우들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제시된 것과 같은 예를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믿음은 분명히 선택 혹은 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듯 보인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일부 믿음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수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후 다시 논의되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례들은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견해를 비판하는 논증의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의성 논쟁은 사실은 표현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데서 많은 부분 비롯된다. 다시 말해, 그러한 논쟁은 표현 ‘믿음’이 다의어로서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그것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심적 태도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우선, 코언(J. Cohen), 올스톤, 브라트만(M. Bratman) 등이 구분한 두 심적 태도, 즉 믿음과 수용(acceptance)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3][4]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믿음과 수용은 여러가지 유사한 속성들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층위에서 반드시 구분될 필요가 있는 서로 다른 두 명제 태도이다. 먼저, 코언에 따르면, “p에 대한 믿음이란, 아주 간단히 말해, 명제 p에 의해 제기되거나 지시되는 문제 또는 대상에 주의할 때, 그에 따라 행위하거나 말하거나 추론할 뜻이 있는지와 상관

3) 이주한(2015) 참조.

4) 주어진 맥락에서 영어 표현 ‘accept’의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은 ‘받아들이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의 명사형 표현인 ‘받아들임’은 여러 문장에서 사용될 때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어, 한자어가 결합된 ‘수용하다’를 ‘accept’의 번역어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받아들이다’와 ‘수용하다’를 서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없이, 명제 p가 참이라거나 명제 ~p가 거짓이라고 보통 느끼게 되는 성향이다" (1992: 4). 올스톤은 믿음을 두 가지 성질을 통해 특징짓는다. 첫째로는, 그 또한 코언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향을 제시하는데, 특히 그에 따르면, 믿음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성향을 갖는다: "만일 S가 p를 믿고 있다면, 정말 p가 맞는지 고려해볼 경우 S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채 정말 p가 맞다고 느끼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두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믿음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이 직접적인 수의적 제어 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96: 4-8). 한편, 브라트만에 따르면, 믿음을 특징짓는 성질들 가운데 다음이 속한다: "합리적인 믿음은 주로 믿음의 대상에 관한 증거에 의해 형성되고, 믿음의 대상이 참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즉, 슬로건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 그리고, "믿음은 보통 직접적인 수의적 제어 하에 놓이지 않는다." (1992: 3-4). 믿음에 관한 이상의 분석 혹은 설명들이 상호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음의 요소들이 그 핵심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즉, 믿음은 (a) 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5] (b) 직접적인 수의적 제어 하에 있지 않은 (c) 심적 성향이다.

한편, 이들에 따르면 수용은 믿음과 뚜렷이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코언은 수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p를 수용한다는 것은 특정 맥락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하기 위해 p를 자신의 전제들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정책을 취하는 것, 다시 말해, p를 참이라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p라고 간주하거나, 단정하거나, 가정하겠다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1992: 4). 올스톤 또한 이와 유사한 분석을 제시하는데 그에

5) '참과의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동일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가 이 사안에 기대고 있지 않으므로 필자는 이들의 구체적인 견해가 무엇인지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따르면, “수용은 무엇보다 행위, 더 구체적으로, 심적 행위이다. […] 수용한다는 것은 명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채택하거나 나타내는 행위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특정 시간에 수행하는 무엇이다. […] p를 수용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p를 ‘안으로 태우는 것’, 즉 자신의 이론적, 실천적 추론이나 행동의 기반이 될 (가정된) 사실들의 범위 안으로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용은 “수의성 여부의 측면에서도 믿음과 뚜렷이 구분된다. 명제를 수용하는 것은 수의적 행위이다. 우리는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의적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1996: 8-11). 끝으로, 브라트만 역시 수용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가 수용하거나 맞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a) 맥락에 따라 적절히 달라질 수 있고 (b) 수용하는 것의 진리치에 관한 증거가 아닌 실천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c) 직접적인 수의적 제어 하에 놓일 수 있다” (1992: 9). 수용의 경우에도 각각의 분석이나 설명이 다소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핵심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에 따르면, 수용은 (a) (충분한) 인식적 이유 없이 이론적 혹은 실천적 목적을 위해 명제를 참이라고 간주하는[6], 그리고 (b) 직접

---

6) p의 수용은 p를 지지하는 인식적 이유 없이 수행되는 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p를 지지하는 인식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수행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가령, p를 지지하는 인식적 이유가 충분치 않아 p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약한 상황에서 p를 수용한 후 (p를 확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p를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위한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코언이 제시하는 수용 개념에 따르면, p를 지지하는 인식적 이유가 충분한 경우에도 p에 대한 수용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올스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용이란 행위를 잉여적인 행위로 만들 여지가 있으며(“p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p를 또 수용할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서 필자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올스톤이 제안한 수용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Cohen(1992: 4-18), Alston(1996: 10) 참조.

적인 수의적 제어 하에 있는 (c) 심적 행위이다.[7]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믿음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인 반면 수용은 수의적인 심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심적 태도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차이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심적 태도는 모두 참과 모종의 관계를 지닌다는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물론 이들이 각각 참에 관계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중요한 측면에서 이들의 참과의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령, 누군가 명제p를 믿는다면 그는 그 명제p를 자신의 이론적 혹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할 성향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은 명제p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특정 명제를 수용하는 사실상의 목적이 그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명제가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추론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나, 그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외적 행위들만을 보아서는 그러한 추론이나 행위의 주체가 그 명제를 믿고 있는 것인지 혹은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말하자면, 이들 두 심적 태도가 드러내는 성향이나 행위의 여러 주요한 측면에서 이들이 참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바로 이 점이 표현 '믿음'이 이 두 태도 모두를 가리키며 사용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 둘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여러 일상적 맥락에서, 이상과 같은 유사성으로 인해 표현 '믿음'은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뿐 아니라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 또한 가리키며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8] 가령,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나의 친구를 일단 '믿

7) 코언과 올스톤에 따르면 수용은 가정(assumption, supposition) 등과 다르다. 이들에 따르면 가정은 좀 더 제한된 목적을 지닌 일시적 행위인 반면, 수용은 더 적극적으로 공약한다는 강한 의미를 지닌다. Cohen(1989: 368), Alston(1996: 11-12) 참조.

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혹은 신입 사원을 일단 ‘믿고’ 일을 맡기는 경우, 표현 ‘믿다’는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보다는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즉, 이 경우들에서 ‘믿기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은, 표현의 다의적 사용을 제거하고 표현할 경우, 수용하기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예컨대, 친구를 믿을 인식적 이유는 없지만 그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즉, 도덕적 이유에서), 그가 돈을 갚을 것이라는 명제를 특정 행위(즉,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위한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기로 선택 혹은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입 사원의 능력을 믿을 인식적 이유는 현재 없지만 가령,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볼 필요에 의해서 (즉, 실용적 이유에 의해서) 그가 업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명제를 특정 행위(즉, 그에게 일을 맡기는 행위)를 위한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기로 선택, 결정할 수 있다.

요컨대, 이상의 논의들이 맞다면 표현 ‘믿다’는 여러 일상적 맥락에서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와 중요한 속성을 공

8) 표현 ‘믿음’이 맥락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을 의미한다는 점으로부터 ‘믿음’을 넓은 의미에서 맥락 의존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정확하게는 이를 다의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길다’ 등과 같은 전형적인 맥락 의존적 표현들은 맥락이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매우 한정적인 의미 범위 안에서 달라진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구분된 두 심적 태도 그리고 이후 3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또 다른 심적 행위인 인식적 수용이 필자가 보기에 표현 ‘믿음’이 맥락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의미의 범위를 이루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하여서 ‘믿음’을 ‘배’, ‘눈’과 같은 중의적(ambiguous) 표현의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의미하는 것들은 중의적 표현의 경우와 달리 어떤 공통된 특징 – 가령, 참과 모종의 관계를 가진다는 특징 – 을 중심으로 유비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유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수용이라는 심적 행위 또한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표현 '믿다'가 이와 같은 다의성을 지니는 것은 어떤 독특한 현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일상 언어가 일반적으로 지니는 맥락 의존성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기 때문에 여러 일상적 맥락에서는 믿음과 수용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구분이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는 이들 간의 차이를 적절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동이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가령, 다음은 지넷(C. Ginet)이 믿음이 수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제시한 사례이다.

> 수(Sue)는 남편 샘(Sam)에게 그가 퇴근할 때 그의 사무실에 있는 책을 한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오후쯤 그녀는 샘이 자신의 이러한 부탁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가 오늘 부탁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 염려한다. 그러나, 그와 연락을 취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싶지도 않아서, 염려를 그만두고 그가 오늘 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기로 한다.*[9]

여기서 수(Sue)는 특정 믿음에 관해 선택 혹은 결정을 내린다. 지넷은 이 사례 및 이와 유사한 몇몇 사례를 근거로 해서 적어도 일부의 믿음들은 수의성을 갖는다고, 다시 말해, 모든 믿음이 불수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구분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사례들에 등장하는 선택이나 결정은 모두 믿음이 아닌 수용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들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수는 <샘이 책을 가져올 것이다>는 명제를 믿을 인식적 이유가 없지만, 가령, 전화 거는 귀찮음을 피하거나 샘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실천적 이유에서 이 명제를 수용하기로 선택

9) Ginet(2001: 64). 사례를 간략하게 수정하였다.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이와 같다면, 이러한 종류의 사례에서 ‘믿기로 하다’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의 불수의성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의성 논쟁은 믿음과 수용이란 두 심적 태도가 구분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경우에 따라 모두 ‘믿음’이라는 표현에 의해 지시된다는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철학적 문제가 언어 사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표현 ‘믿음’이 일상적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철학적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다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해당 철학적 문제가 해결 혹은 해소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

앞선 절의 논의는 표현 ‘믿음’이 단일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다의성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의적으로 가리키는 서로 다른 심적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관련된 철학적 문제를 해결 혹은 해소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상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믿음과 수용이 표현 ‘믿음’이 가리키는 심적 태도의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른 심적 태도, 특히, 앞서 논의된 수용과 구별되는 또 다른 종류의 심적 행위인 수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이러한 의미의 수용은 기존 논의들에서 주목 받거나 이론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거의 있지 않다. 따라서 이후 논의에서는 이 심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이 행위에 대한 이해가 관련된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한 초등학생 아이의 잘못으로 같은 반의 여러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에 관련된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달려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주변 여러 아이들의 믿을만한 목격담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저지른 아이의 어머니가 극구 자기 아이의 잘못일 리가 없다며, 심지어 아이의 행동에 고의성조차 있었다는 여러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이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의 학부모가 또 다른 아이의 학부모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어쩜,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아!", "몰랐어요?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여잔데.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겠지." 이상의 두 학부모 간의 대화는 '믿다'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자연스런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용에서 표현 '믿다'가 의미하는 태도는 앞서 논의된 두 심적 태도, 즉 믿음과 수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이 대화에서 이들이 의미하는 심적 태도는 수의성을 갖는 태도로 보이며 따라서 그것은 불수의적 심적 성향인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의적인 태도라고 해서 그것을 앞서 논의된 심적 행위인 수용이라고 바로 간주한다면 이 역시 틀리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태도가 수용이기 위해서는 그 태도는 비인식적 이유에 의해 수행되는 태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어떤 명제가 인식적 이유에 의해 지지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로 간주할 다른 비인식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행되는 그러한 태도이다. 반면, 주어진 사례에서 두 학부모가 의미하는 심적 태도는 이와 달리 인식적 이유에 의해 수행이 되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해당 맥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주어져 있는 여러 증거들 – 즉,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의 증언 – 에 잘 부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어진 대화에서 표현 ‘믿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는 심적 태도는 앞서 엄밀히 구분된 두 심적 태도인 믿음과 수용에 의해 적절히 포착되지 않는다. 이제 필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화에서처럼 우리가 표현 ‘믿다’를 통해 일상적으로 의미하나 이론적으로 아직 제대로 개념화되지 않은 심적 태도를 가능한 한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일이다.[10][11]

우선, 이 구체적인 해명 작업에 들어감에 있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필자가 제시하는 이 심적 태도, 즉 인식적 수용이란 것이 어떤 새롭고 낯선 종류의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수용 개념을 앞선 절에서 논의된 수용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앞선 절에서 논의된 수용을 ‘실용적 수용’, 필자가 제시하는 수용을 ‘인식적 수용’으로 명명하도록 한다.[12]) 그것은 위의

---

10)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점은 인식적 규범 – 특히,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 – 에 관한 논의들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믿음의 많은 것들이 위 대화에 등장하는 종류의 믿음, 즉 이후 곧 논의될 종류의 심적 태도라는 점이다. Clifford(1877: 289-295), Chisholm(1977: 5-14), BonJour(1985: 8) 참조.

11) 이하의 논의는 제시될 심적 태도에 대한 정의나 분석이 아님을 밝혀둔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지닌 주요 특징을 풀어 설명하는 것에 해당한다.

12) 위에 제시된 두 학부모 간의 대화 내에 사용된 표현 ‘믿다’를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다(즉, 수용하다)’로 대체하여 보자. “어쩜,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도대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몰랐어요?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여잔데.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 이렇게 대체될 경우, 주어진 맥락에서 그 본래의 의미는 커다란 손상 없이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이것은 위 대화에서 표현 ‘믿다’가 받아들이다(즉, 수용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곧 논의되겠지만, 이 때 의미되는 수용은 앞서 논의된 수용과 다른 심적 태도이다. 앞서 논의된 수용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실용적 목적에서 특정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태도인 반면, 이후 논의될 인식적 수용은 이와 달리 인식

사례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가령,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일상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종류의 태도로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일상적인 심적 태도의 하나이다. 물론 명제를 참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 외의 다양한 명제 태도 - 가령, 믿음, 가정, 상상, 그리고 앞서 논의된 실용적 수용 등 - 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참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 그 구별되는 특징을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인식적 수용의 대상이 되는 명제는 인식 주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명제라는 점이다. 기존에 믿고 있지 않은, 따라서 자신의 인지 체계 내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은 명제는 인식적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인식적 수용의 대상이 되는 명제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명제이되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자신이 또한 가지고 있는 명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믿거나 알게 되는 사실(혹은 명제)을 언제나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즉,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믿거나 알게 되는 사실(혹은 명제)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곤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가끔씩은 실제로 그러한 사실(혹은 명제)을 거부하기 위한 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도는 그럴 경우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의 자기기만적 (심적, 신체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곤 한다. 인식적 수용이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거부하고픈 욕구나 동기, 즉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가 있을 때 그에 대항하여 수행되는 심적 행위이다.

적 목적 하에서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앞서 논의된 것을 실용적 수용, 이후 논의될 것을 인식적 수용으로 구분하여 명명하도록 한다.

따라서, 인식적 수용은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되,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에 대항하여 있는 그대로, 즉 그 명제가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EA1)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그것이 그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앞서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두 학부모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이들이 발화한 표현 ‘믿다’를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해석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아!”,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겠지.”라는 문장에서 표현 ‘믿다’를 이상에서 제시된 인식적 수용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보다 명확히 이해된다. 예컨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 – 가령, 자존심의 상처 – 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 가령,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의 증언 – 가 가리키고 있는 사실, 즉 자신의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간주한다는, 그러한 심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의미이다.[13]

13) 여기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거부할 때 그것을 이미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주관적으로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그에 따르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명제를 거부할 경우 전

인식적 수용에 관한 이상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인식적 수용은 특징적으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유 혹은 동기가 상호 경쟁하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심적 행위이다. 즉, 행위 주체는 한편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할, 즉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받아들일 인식적 이유 혹은 동기를 가지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 혹은 동기를 가진다. 위에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아이의 엄마는 한편에서는 '내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명제를 받아들일 인식적 이유, 즉 담임 선생님이나 함께 한 아이들의 증언이 가리키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령,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욕구 등과 같이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각각 지니고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이 중 후자의 이유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일 믿음의 증거는 가지고 있으나 그 믿는 바를 거부할 별도의 비인식적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는 모든 것은 단지 증거에 따라 해당하는 믿음이 형성되는 사건뿐이며, 그 외에 그에 관한 별도의 심적 태도, 즉 인식적 수용 행위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인식적 수용이라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특정 명제가 참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가 나타날 때, 그러한 비인식적 이유에 대항하여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증거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인식적 수용이 수행

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기만적 행위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가령, p에 관한 증거가 주어질 때 이를 거부하는 자기기만적 행위는 p에 관한 증거를 편향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증거 자체를 외면하는 행위, 또는 ~p에 우호적인 증거들에 주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통되게 p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p가 참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이 가정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행위들이 왜 그러한 식으로 나타나는지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될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인식적 수용은 이미 믿고 있는 명제에 대하여 나타나는 태도라는 점에서 이차적 명제 태도이다.[14] 물론, 이것은 인식적 수용이 믿음에 관한 태도, 즉 태도에 관한 태도라는 것이 아니다. 인식적 수용은 명제 자체에 관한 태도이다. 그러나, 그 명제는 믿음이라는 명제 태도에 의해 이미 자신의 인지 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명제이다. 따라서, 인식적 수용은 시간적으로 반드시 믿음 이후 나타나게 되며 믿음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인식적 수용은 그것이 수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믿음이라는 명제 태도를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이처럼 믿음이란 명제 태도에 의존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차적 명제 태도이다. 그런데, 인식적 수용과 믿음이 이처럼 하나의 동일한 명제에 대하여 나타나는 태도라고 한다면, 특히, 이 두 태도가 모두 넓은 의미에서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심적 태도라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인식적 수용은 언뜻 불필요한 혹은 잉여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명제가 믿음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인지체계 내에 들어왔는데, 인식적 수용은 그 동일한 명제를 ‘다시 한 번’ 자신의 인지체계 내로 들여오는 잉여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적 수용은 믿음처럼 특정 명제를 자신의 인지체계 내에 새로이 ‘들여오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미 들어와 있는’ 명제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려는 이유나 동기가 나타나는 경우 그에 맞서 해당 명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

14) 믿다, 가정하다, 상상하다, 염려하다, 욕구하다, 생각하다 등의 다양한 명제 태도들 가운데, 믿다, 염려하다, 욕구하다 등과 같은 명제 태도는 불수의적인 심적 상태인 반면, 가정하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등과 같은 명제 태도는 (많은 경우) 수의적인 심적 행위에 속한다. 즉, ‘명제 태도’는 일반적으로 불수의적인 심적 상태와 수의적인 심적 행위 모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인식적 수용은 이 가운데 후자에 속하는 명제 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는, 즉,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식적 수용은 믿음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사실상 반복하는 잉여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 형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조건과 상황 그리고 목적 하에서 수행되는 별도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식적 수용은 개인의 인지 체계가 분할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이 통합된 인지 상태에 머물도록 기능한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인식적 수용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유 즉, 인식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상호 경쟁하는 맥락에서 나타나게 되는 행위이다. 이 때 만일 누군가 비인식적 이유에 따라 행위할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자. 비인식적 이유를 따르는 행위는 바꿔 말하면 믿고 있는 바를 거부하려는 행위이며, 이는 예를 들어 명제p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p에 우호적인 증거로부터 주의를 돌리거나 주어진 증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반대로 ~p에 우호적인 증거를 찾거나 그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비인식적 이유를 따라 행위할 경우 그는 한편에서는 그가 거부하고자 하는 p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에 예를 든 것과 같은 자기기만적 행위들을 수행하며 ~p에 주목하고 ~p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혹은, ~p를 함축하는 명제 q에 주목하거나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의 인지 체계는 그가 거부하고자 하는 p가 속한 영역과 그가 자기기만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p가 속한 영역, 즉 상호 양립 가능하지 않은 두 영역으로 분할된다. 데이빗슨(D. Davidson)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러한 생각을 잘 반영한다.[15]

> 요점은 사람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나 상반된 믿음들을 분리한 채로 가질 수 있고 때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신의 부분들 사이에 경계가 존재할 수 있

15) Davidson(1982, 1985) 참조.

> 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그러한 경계가 상충하는 믿음들마다 그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상정한다. (Davidson 1985)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상호 경쟁할 때 후자의 이유를 따라 행위하는 것이 개인 안에 이와 같이 분할된 인지 체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인식적 수용 행위는 결과적으로 인지 체계가 그처럼 분할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어떤 명제를 수용할 경우 그것은 그 명제를 거부하려는 자기기만적 행위의 단념을 결과적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식적 수용은 우리의 인지 체계가 모순된 상태로 분할될 상황에서 하나의 통합된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따라서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상태에 머물도록 기능한다.

이상으로 인식적 수용이라는 태도가 어떠한 심적 행위인지 그에 관해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설명이 제공된 듯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몇몇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인식적 수용이란 태도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과 이해가 제시될 것이다.[16]

4. 몇 가지 의문과 답변

1)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의 구분

우선, 이상에서 제시된 인식적 수용 개념에 따르면 명제 p의 인

16) 이상에서 논의된 실용적 수용, 인식적 수용 외에 철학 문헌에서 '수용'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예로 레러(K. Lehrer)의 논의를 생각할 수 있다. 그가 특별한 정의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그가 다루고 있는 수용이 정확히 어떤 태도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그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수용은 심적 상태로서 특별한 종류의 믿음과 같이 취급될 수 있으며, 지식을 이루는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 Lehrer(1990), 1, 2장 참고.

식적 수용은 p에 대한 믿음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또한 그것은 언제나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상호 경쟁하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 가능하다. 가령, 당신이 데카르트적인 방법적 회의를 통해 '(p)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전능한 기만자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즉, 수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p의 참, 거짓 여부를 알아내고자 한다고 하자. 이와 같은 경우, 당신은 p의 참, 거짓 여부를 알아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p를 수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인식적 수용에 해당하는 듯하다. 그러나 p를 수용하기 이전에 p에 대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혹은, 또 다른 사례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이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탐구의 맥락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병원 A에서는 산모들의 사망률이 낮은 반면 병원 B에서는 산모들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은 '(q) 이 차이가 B에서 근무하는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하다가 묻혀온 시독(cadaverous matter)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suspicion)하지만 q에 대해 확신이 서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끝에 결국 당신은 q를 받아들인다(즉, 수용한다). q는 몇몇 확인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설명하여 준다. 가령, A병원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B병원에서 주로 실습하던 의대생들이 A병원에서 잠시 일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A병원의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치솟았다. 또한, 오전에 해부 실습을 한 의대생들은 점심을 스스로 조리해야 했기에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해먹은 후 오후에 B병원에서 일한 경우가 많았는데, B병원에서 이들이 담당한 산모들의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q에 대한 당신의 수용은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인식적 수용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경우, q에 대한 당

신의 수용이 q에 대한 믿음 이후 이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명치 않으며, 무엇보다 이 수용 q는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17]

이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례와 그에 대한 주어진 해석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인식적 수용 개념에 의미 있는 반론을 제공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상의 비판은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먼저, 첫 번째 사례에서, p 즉,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전능한 기만자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에 대한 수용은 궁극적으로 p의 참, 거짓 여부를 알아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수용이 인식적인 종류의 수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p에 대한 수용이 인식적 수용이기 위해서는, 앞선 정식화에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p를 참이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p를 참이게 하는 증거는 가정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 p를 참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방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즉, p를 참으로 간주함으로써 p를 이후의 이론적,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p의 참, 거짓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추론을 수행하는 데 p를 전제로 사용하거나, 혹은 p의 참, 거짓을 확인할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 실천적 추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p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선 논의에 따르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위해 어떤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심적 행위가 실용적 수용이다. 즉, 제시된 첫 번째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용은 인식적 수용이 아니라 실용적 수용이다.

두 번째 사례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

17) 이상의 두 사례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우선 이 사례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점 하나는 이 사례가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이 믿음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는 점이다. 즉, 주어진 사례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는 '(q) 이 차이는 B에서 근무하는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하다가 묻혀온 시독(cadaverous matter) 때문이다'는 가설이 몇몇 현상들을 잘 설명해준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가설을 수용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가설이 유관한 여러 현상들을 잘 설명해줄 때 그 가설을 받아들이는 수의적 행위를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설명을 제공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증거로 하여 믿음을 불수의적으로 형성한다. 예컨대, 어떤 범죄 현장에 K씨 소유의 흉기, K씨의 지문 등이 발견된다면 당신은 이를 근거로 'K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심적 행위를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근거로 'K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믿음을 (비록 이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질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해된다면 위에 제시된 산부인과 사례는 수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론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물론,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의 모든 경우를 이와 같은 불수의적인 과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이 추론 과정의 또 다른 많은 경우는 가설 명제에 대한 수의적인 심적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 듯하다. 그런데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이 이와 같이 수의적인 심적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해당 가설이 몇몇 현상들을 잘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해당 가설이 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며, 따라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를 작업 가설로서 받아들인 후 그에 대한 일련의 검사 과정을 밟는다. 다시 말해, 이 가설을 참이라고 간주할 증거(즉, 인식적 이유)는 없지만

검증 절차를 밟기 위해 이를 받아들인 후 (즉, 수용한 후) 이 가설을 추후의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위한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과학적 탐구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수용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실용적 수용에 해당한다. 즉,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을 이와 같이 수의적인 심적 태도가 나타나는 과정으로 해석할 경우,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수용은 인식적 수용이 아니라 실용적 수용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은 사례들은 인식적 수용이 아니라 실용적 수용이 수행되는 경우들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러한 사례들이 필자가 제시한 인식적 수용 개념에 대한 반론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믿음, 판단중지, 불신, 그리고 인식적 수용

이상에서 제시된 인식적 수용 개념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물음은 그것이 인식적 이유에서 수행될 수 있는 심적 행위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식적 수용이 앞서 설명된 대로 믿음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심적 행위라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적(doxastic) 태도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누군가 어떤 명제에 대하여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적 태도, 가령 판단중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주어진 태도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강력한 무신론자가 유신론의 견해를 논박하려는 생각으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의도와는 다르게 양 진영의 견해를 지지하거나 논박하는 증거들이 각각 거의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자신의 그 동안의 무신론적 연구 업적

및 명예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또한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경우, 무신론자에게 주어진 증거는 판단중지의 태도를 지지한다고 보이며, 주어진 맥락에서 무신론자가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태도 – 즉,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 말지의 태도 – 는 지금까지 논의된 인식적 수용 행위와 동일한 성격의 태도인 것 같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인식적 수용의 정식화는 이러한 사례를 포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적 태도 중 오직 믿음의 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식적 수용에 대한 이해는 믿음적 태도 각각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제시된 인식적 수용의 정식화를 각각의 믿음적 태도의 특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다음은 믿음적 태도의 일반적인 분류 방식을 따라 믿음뿐 아니라 불신(disbelief)과 판단중지 또한 포괄할 수 있도록 인식적 수용의 정식화를 일반화한 것이다.

(EA2-a)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i)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이 그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하거나,

(ii) 자신이 판단중지하고 있는 명제를 그것이 그 판단중지의 태도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판단중지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도 거짓으로도 간주하지 않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하거나,

(iii) 자신이 불신하고 있는 명제를 그것이 그 불신의 태도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불신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거짓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하나의 정식화를 통해 표현하면,

(EA2-b)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음적 태도를 취하고 명제를 그것이 그 믿음적 태도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적 태도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 또는 거짓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어느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정식화에 따르면 예컨대, 앞선 사례의 무신론자가 고민하고 있는 태도는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해 판단중지하고 있는 명제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그것이 그 판단중지의 태도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즉 증거가 가리키는 그대로 수용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인식적 수용의 분석 가능성

한편, 인식적 수용이란 심적 태도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음은 그것이 과연, 가령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과 같이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또 하나의 별도의 심적 태도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있는 다른 행위나 태도들로 분석되거나 그것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기본적인 행위인

가 하는 물음이다. 물론, 인식적 수용이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여전히 유의미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행위나 태도들을 복합적으로 일컫는 것에 해당할 뿐이라면 그만큼 이론적인 흥미는 많이 낮아질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식적 수용은 논의된 바와 같이 비인식적 이유 혹은 동기를 거스르며 수행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인식적 수용은 언제나 비인식적 이유를 따라 행위할 것에 대한 단념을 동반한다. 즉,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것은 명제p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p에 우호적인 증거로부터 주의를 돌리거나 주어진 증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반대로 ~p에 우호적인 증거를 찾거나 그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행위 등의 단념을 동반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식적 수용'이란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어떤 단순한 종류의 행위를 일컫는다기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여러 자기기만적 행위들, 즉 비인식적 이유를 따르는 행위들에 대한 단념을 단순히 일컫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른다면, 가령, '내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아이 엄마가 받아들였을 경우, 즉 인식적으로 수용하였을 경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이 엄마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심적 행위를 수행하였다는 게 아니라, 그녀가 취할 수 있었던 (혹은, 실제로 취하였던) 자기기만적 행위를 단순히 단념하였다는 게 된다.

필자는 이상의 견해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한 생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적 관행 혹은 직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어진 견해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화를 생각해 보자. 아이 엄마가, "당신은 당신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자기기

만적 행위의 하나로서) 애써 곡해하거나 트집 잡으려는 노력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해,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즉, 수용하기로) 했거든요.”라고 답변을 한다. 이 경우 아이 엄마의 주어진 문장의 발화는 매우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또한 잘 이해된다. 그러나, 위 대화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보자. 즉, “당신은 왜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즉, 수용하기로) 했나요?”라는 물음에 대해 “제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자기기만적 행위의 하나로서) 애써 곡해하거나 트집 잡으려는 노력을 중단하였거든요”라고 답변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아이 엄마의 주어진 문장의 발화는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즉, 대화 순서를 바꾸어 놓은 위의 두 대화는 이해 가능함의 측면에서 서로 비대칭적이다. 왜 그러한가? 만일 인식적 수용이 위에 제시된 견해와 같은 의미에서 분석 가능하다면 위 대화의 두 문장, 즉 질문과 답변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럴 경우, 위의 두 대화는 그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든지 간에 비대칭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즉, 어느 한 대화가 이해 가능하다면 순서를 바꾸어 놓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해 가능해야 하고, 만일 어느 하나가 이해 가능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하나도 이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위 대화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의 하나는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대화가 자연스러운 것은 아이의 잘못을 받아들인(즉, 수용한) 사건이 자기기만적 행위를 중단한 사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 이와 달리 두 번째 경우 대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대화 순서를 바꿈으로써 인과적 설명에서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위의 대화가 예시하는 언어적 관행이나 직

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일 수는 없고, 또한 이러한 언어적 관행 또는 직관이 인식적 수용의 분석 불가능성에 대한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에 나타나는 언어적 관행이나 직관에 대하여 오류이론적 회의주의를 가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상에서 제시된 설명을 대체할 만한 더 나은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 수용이 주어진 것과 같은 의미에서 분석 가능한 복합 개념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인식적 수용 개념을 환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럴듯한 복합 개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인식적 수용은 더 이상 분석이 되지 않는 기본적 행위라고 믿을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4) 인식적 수용과 판단

한편, 앞선 논의에 따르면 인식적 수용이 실용적 수용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은 둘 모두 수의성을 갖는 심적 태도이되 전자는 후자와 달리 인식적 이유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불수의적이라 하더라도 수의성을 갖는 인식적인 종류의 심적 태도가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여준다. 그런데, 인식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심적 태도의 수의성을 또 다른 종류의 심적 행위를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그것은 판단이란 태도를 통한 이해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판단이란 개념을 통해 인식적 태도의 수의성을 해명하려는 시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그럴듯한지, 만일 그럴듯하다면 판단이라는 심적 행위는 인식적 수용과 어떤 식으로 관계될 수 있는지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몇몇 진술들은 인식적 태도의 수의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판단이라는 심적 행위 개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잘 보여준다.[18]

> 판단은 이유에 의해 수행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 믿음은 어떤 내용에 대해 정확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판단의 내용을 저장한다. (Peacocke 1998: 88)

> 판단은 명제를 긍정하는 인지적인 심적 행위이다. […] 반면, 믿음은 명제를 참으로 표상하는 심적 상태로서 인지적 행위라기보다는 인지적 태도이다. […] [판단 행위로부터 믿음 상태로의] 전이가 정확히 어떤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서술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분명히 익숙한 일로서, 그에 의해 명제는 정신 안으로 들어와 현행적으로 참으로 간주된 뒤 이후 지속적으로 머물게 된다. (Shah and Velleman 2005: 503)

> 믿음은 행위나 과정이기보다는 상태이다. S가 P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S가 수행하거나 겪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S의 심적 상태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다. […] 판단은 심적 행위이다. […] 내가 어떤 명제 P를 지지하는 타당하고 건전한 논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나는 논증를 따라 생각해 본 후 P라고 결론을 내린다. […] P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P라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믿음 형성이 판단에 의해 매개되는 하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Cassam 2010: 82-83)

이상과 같은 진술들에 따르면 믿음은 인식적 이유가 주어질 경우, 그로부터 직접 불수의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판단 행위가 수행되는 중간 과정을 거친 후에 형성이 된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인식적 이유 → 수의적 판단 → 믿음’으로 도식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지각적 믿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할 경우 당장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각적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 수의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견해를 믿음 일반 대신 예컨대 숙고적(deliberate) 믿음의 경우로만 제한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경우에 한

18) 아래의 사례는 Boyle(2011:4)로부터 재인용.

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는 듯 보인다.[19] 가령, 당신이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당신은 관련된 여러 증거들, 즉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들과 그를 반대하는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를 토대로 신의 존재를 믿기로 (혹은 믿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어떤 한 명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증거들이 경합을 벌일 때 그 증거들에 대한 숙고 과정을 가진 후 그를 토대로 그 명제를 믿거나 믿지 않기로 (혹은 보류하기로)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숙고적 믿음에 관한 한, 앞서 도식화된 과정은 믿음이 어떻게 형성, 수정되는지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보일(M. Boyle)은 인식적 태도에 나타나는 수의성을 '인식적 이유(에 관한 숙고) → 수의적 판단 → 믿음'의 과정을 통해 해명하는 이상과 같은 견해 일반을 '과정 이론'이란 이름으로 요약한다.

> 과정 이론:
> P인지 아닌지에 대한 숙고는 그것이 잘 진행될 경우 P가 참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는 과정이다. 판단은 그를 통해 기존의 믿음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믿음을 수립하는 하나의 현행적(occurrent) 행위이다. 믿음은 그 자체로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Boyle 2011: 5)

19) 우리 언어에서 '판단'이라는 표현은 때로 불수의적인 심적 과정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다. 예컨대, '판단에 이르다', '판단하게 되다' 등과 같은 표현은 수의적인 심적 행위를 의미하기보다 주어진 증거에 기초하여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불수의적인 심적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 같다. '판단'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면 가령 지각적 믿음의 경우에도 판단의 과정이 개입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단이라는 태도는 수의성을 갖는 심적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런 의미의 판단에 가장 그럴듯하게 관련될 수 있는 종류의 믿음은 아마도 숙고적인 믿음일 것이다.

판단이라는 심적 행위 개념을 통해 인식적 태도의 수의성을 해명하려는 이상에서 소개된 시도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이상에서 제시된 견해는 숙고적 믿음의 경우 가장 그럴듯해 보이므로 이하 논의는 숙고적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명제p에 관한 여러 경합하는 인식적 이유들을 숙고한 결과, 최종적으로 p가 인식적 이유에 의해 충분히 지지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과정 이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숙고 결과를 바탕으로 p를 믿을지 판단 혹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 때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가지 즉, 인식적 이유에 따라 p를 믿는 일과 그렇게 하지 않는 일 두 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택지를 택하든 문제점이 드러난다.

먼저, 인식적 이유에 따라 p를 믿기로 결정 혹은 판단을 내릴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주의할 점은 p가 인식적 이유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이 숙고 과정 결과 파악되어 있다는 점이다.[20] 따라서 이를 파악한 주체는 적어도 그 시점에는 p를 지지하는 최종적인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반박할 더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 즉, 인식 주체 입장에서는 p를 믿을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p에 대한 지각적 증거를 획득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믿음이 불수의적으로 형성될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 것과 같다. 그렇다면, 여기에 ‘믿기로 결정 혹은 판단’하는 수의적 행위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개입되는 판단 과정이 불수의적인 과정이라면, 즉 예컨대 <판단하게 되다> 혹은 <판단에 이르다> 등과 같은 과정이라면 판단에 의한 매개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해될

20)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숙고 과정을 통해 p가 인식적 이유에 의해 지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는 것은 불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명제가 이유들에 의해 지지되는지 지지되지 않는지 수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판단이 하나의 수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왜 개입되는 것인지, 그것은 불필요한 잉여적 과정으로서 개입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판단 행위가 실제로 개입된다는 견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의문을 남긴다. 그것은 숙고적 믿음의 어떤 경우에는 왜 판단 행위가 개입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충하는 여러 이유들을 숙고한 결과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 믿음이 어떤 수의적인 판단 과정의 매개 없이 단지 주어진 증거들을 고려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다시 말해 불수의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맞다면 숙고 과정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판단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게 되고, 다시 한 번 왜 숙고적 믿음의 어떤 경우에만 판단 행위가 개입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의문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 한, 인식적 이유에 따라 p를 믿기로 결정 혹은 판단할 수 있다는 과정 이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인식적 이유에 따라 p를 믿기로 결정 또는 판단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는 숙고 결과 p가 인식적 이유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이 파악되었음에도,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p를 믿을 이유를 지니고 있고 또한 이를 반박할 더 이상의 이유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를 믿지 않겠다고, 가령, p에 대하여 판단 중지를 하거나 혹은 ~p를 믿겠다고 결정,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통해 해당하는 숙고적 믿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판단을 통해 p에 관한 자기기만적 믿음이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

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자기기만 이론에 따르면 의도적인 모형에 의해 해석되는 자기기만적 믿음은 소위 ‘정적 퍼즐’과 ‘동적 퍼즐’을 낳아 그러한 믿음이 형성 가능한지 결코 분명치 않으며, 비의도적인 모형에 의해 해석되는 자기기만적 믿음은 그 형성 과정에 결정이나 판단과 같은 과정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21] 결국, 이상의 논의는 가능한 두 선택지 - 즉, 인식적 이유에 따라 p를 믿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 중 어느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숙고적 믿음은 과정 이론이 말하는 것과 같이 분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끝으로, 필자는 숙고적 믿음에서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수의성은 오히려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그럴듯한지 대안적 견해를 제시함으

---

21) Davidson(1985), Mele(2001: 1장-3장) 참조. 의도적인 모형으로 해석된 자기기만적 믿음이 야기하는 두 가지 퍼즐은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선, 개인간의 속임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을 전제한다.

1. A가 B로 하여금 p를 믿도록 속인다는 것은 A는 ~p를 알거나 참되게 믿으면서 또는 p를 믿지 않으면서 B로 하여금 p를 믿게 만든다는 것을 함축한다.
2. 속인다는 것은 의도적 행위이다. 비의도적인 속임이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간 속임의 모형을 자기기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퍼즐이 발생한다. 첫째, 위의 첫 번째 조건의 ‘B’에 해당하는 곳에 자기 자신인 ‘A’를 넣어 해석하면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자기기만 현상이 일어날 경우 결과적으로 A는 ~p를 믿으면서 동시에 p를 믿게 되거나, 또는 p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p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즉, 자기기만은 인지적으로 자기모순적인, 다시 말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태를 함축한다. 이를 자기기만 현상에 관한 ‘정적 퍼즐’이라 부른다. 둘째, A가 B를 속이는 개인간 속임에서 만일 B를 속이려는 A의 의도가 B에게 알려진다면 속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자기기만의 경우에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속이려는 의도가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의도적 행위로서의 자기기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를 자기기만에 관한 ‘동적 퍼즐’이라 부른다.

로써 본 절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가능한 한 가지 대안에 따르면 숙고적 믿음의 경우 수의성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판단이라는 별도의 심적 행위가 개입되기 때문이라기보다 숙고의 과정 자체가 수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합하는 인식적 이유들을 비교, 견주는 숙고의 과정은 다양한 심적 행위들이 수행되는 과정으로, 가령, 관련 증거들을 탐색하거나(searching) 특정 증거에 주목하는 행위(attending), 혹은 계산하거나(calculating) 추론하는(reasoning) 등의 행위들이 이 과정 중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수의적인 과정을 통해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숙고적 믿음의 경우 수의성이 개입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다음으로, 또 다른 대안적 분석에 따르면, 숙고적 믿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수의적 요소는 필자가 제안한 인식적 수용 행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식적 이유들에 대한 숙고 결과 믿음 자체는 불수의적으로 형성되나, 이면에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이기(즉,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비인식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 인식 주체는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판단 혹은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수의적으로 보이는 판단 혹은 결정의 과정은 믿음을 형성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불수의적으로 형성된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숙고하고 있는 문제가 당신이 오래도록 지지해 온 이론적 입장에 관한 것인데 숙고 결과 인식적 이유들이 당신의 입장의 수정 혹은 철회를 요구한다면, 설령 인식적 이유가 그러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에 대해 모종의 ‘불편함’, ‘달갑지 않은 감정’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당신은 인식적 이유에 따라 당신의 입장이 틀리다는 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요컨대, 숙고적 믿음

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수의적인 판단은 인식적 수용이란 심적 행위에 관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정리하면, 이상의 논의는 숙고적 믿음과 관련된 수의성은 숙고 과정 자체가 지니는 수의적 성격을 통해 이해될 수 있거나, 만일 판단이라는 수의적 태도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면, 판단이 인식적 수용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판단이라는 수의적인 심적 태도는 인식적 수용이라는 심적 태도와의 관계 하에서 보다 적절히 이해될 수 있음을 결론적으로 보여준다.

5. 전망: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의 대안적 해석 가능성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인식적 존재로서 인간이 취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심적 태도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믿음에 관한 논의는 특히 지식, 인식적 정당성 등을 탐구하는 전통적인 인식론 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가 맞다면 믿음에 대한 이해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믿다’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일상 언어에 속한 표현으로서 그것은 일상 언어의 많은 표현이 그러하듯 맥락 의존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떠한 속성을 갖는지 등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동떨어진 별개의 심적 태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닌 한, ‘믿다’라는 표현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의미를 달리하는지 특별히 주의하며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는 ‘믿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세 가지 서로 다른 심적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것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심적 행위인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 또한 맥락 상대적으로 의미한다. 물론,

각각의 태도가 서로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참과 특별한 방식으로 - 그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 관계를 맺는다는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런 공통된 인식적 성격으로 인해 여러 일상적 맥락에서는 이들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믿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통해 모두 지시될 수 있고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엄밀한 이해가 요구되는 이론적 맥락에서는 이들 간의 혼동이 불필요한 문제를 낳을 수 있고, 만일 그와 같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수순은 이들을 구분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구분된 심적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지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의 논의는 '믿음'으로 불리는 서로 다른 심적 태도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 또한 제시한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소개된 바와 같은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그러한 사례의 하나에 해당한다. 가령, 이미 부분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수의적으로 보이는 믿음과 불수의적으로 보이는 믿음의 많은 사례들은 모순된 현상을 드러내기보다 그것들이 동일한 종류의 심적 태도에 속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심적 행위로서 이해되는 믿음이 실용적 수용 외에 인식적 수용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불리는 심적 태도의 더 많은 것들에서 왜 수의성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될 필요가 없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준다. 물론, 의미론적 관점에서 해당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수의성 여부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기기만적 믿음에 나타나는 수의성은, 실제로 수의성이 나타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가 적어도 수의적인 믿음의 많은 경우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논쟁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인식론적 문제는 인식적 정당성 혹은 합리성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믿음에 부여되는 규범은 전통적으로 의무론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인식적 외재론이 크게 주목 받으면서, 그리고 특히 믿음의 불수의성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면서 인식적 규범에 관한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인식적 규범에 관한 또 다른 철학적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적 수용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 규범, 특히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 해당 철학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전망을 제시한다. 인식적 규범에 관한 오래된 가정은 그것은 가령, 행위의 규범을 다루는 윤리학과 달리, 믿음에 관한 규범을 다룬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믿음’이 특정한 한 종류의 심적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특히 인식적 수용이라는 심적 행위를 의미의 하나로 갖는다면, 인식적 규범은 사실은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에 부여되는 규범으로서 이해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특히, 표현 ‘믿음’이 인식적 수용의 의미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인식적 수용에 관한 앞선 사례에서, 자신의 아이가 잘못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는 인식론의 여러 문헌에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유형에 속한다. 이 사례에서 표현 ‘믿다’가 인식적 수용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경우 인식적 규범은 엄밀히 기술할 경우 인식적 수용이라는 심적 행위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인식적 수용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 규범을 행위

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믿음이 수의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인식적 규범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의미 있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인식적 규범, 특히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 일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의 탐구 과제로 미루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탐구가 이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인식적 수용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 규범에 관한 해당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풀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제안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주한 (2015), "믿음의 불수의성의 필연성", 『철학』, 제124집, 141-164쪽.

Alston, William P. (1988), "The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pp. 257-299.

_____(1996), "Belief, acceptance, and religious faith", in Jeff Jordan and Daniel Howard-Snyder, eds., *Faith, freedom, and rationalit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_____(2005), *Beyond Justification: Dimensions of Epistemic Evalu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Bennett, Jonathan (1990), "Why Is Belief Involuntary?", *Analysis*, 50 (2), pp. 87 - 107.

BonJour, L. (1985),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oyle, Matthew (2011), "'Making up Your Mind' and the Activity of Reason", *Philosophers' Imprint*, 11, pp. 1-24.

Bratman, Michael E. (1992), "Practical Reasoning and Acceptance in a Context", *Mind*, 101 (401), pp. 1-16.

Cassam, Quassim (2010), "Judging, Believing and Thinking", *Philosophical Issues*, 20, pp. 80-95.

Chisholm, R. (1977), *Theory of Knowledg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Clifford, W. K. (1877/1999), "The Ethics of Belief", in T. Madigan, ed, *The Ethics of Belief and Other Essays*, Amherst, MA: Prometheus.

Cohen, L. J. (1989), "Belief and Acceptance", *Mind*, 98 (391),

pp. 367-389.

_____(1992), *An Essay on Belief and Acceptance*, Oxford: Clarendon Press.

Davidson, Donald (1982), "Paradoxes of Irrationality", in R. Wollheim and J. Hopkins, eds., Philosophical Essays on Freu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1985), "Deception and Division", in *Problems of Rati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eldman, Richard (1988), "Epistemic Obligations",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pp. 235-256.

_____(2000), "The Ethics of Belief",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0, pp. 667-695.

_____(2001), "Voluntary Belief and Epistemic Evaluation", in Matthias Steup (ed.), *Knowledge, Truth, and Duty: Essays on Epistemic Justification, Responsibility, and Virtu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77-92.

_____(2008), "Modest Deontologism in Epistemology", *Synthese*, 161 (3), pp. 339-355

Ginet, Carl (2001), "Deciding to Believe", in Matthias Steup (ed.), *Knowledge, Truth, and Duty: Essays on Epistemic Justification, Responsibility, and Virtue*, Oxford University Press.

Hieronymi, Pamela (2006), "Controlling attitude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87, pp. 45-74.

Lehrer, Keith (1990), *Theory of Knowledge*, Routledge.

McHugh, Conor (2012), "Epistemic Deontology and Voluntariness", *Erkenntnis*, 77 (1), pp. 65-94.

Mele, Alfred R. (2001), *Self-deception Unmasked*, Princeton, NJ: Princeton.

Peacocke, Christopher (1998), "Conscious Attitudes, Attention, and Self-Knowledge", in *Knowing Our Own Minds*, ed. C. Wright, B. Smith, and C. MacDona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lantinga, A. (1993), *Warrant, The Current Deb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ussell, Bruce (2001), "Epistemic and Moral Duty", in Matthias Steup (ed.), *Knowledge, Truth, and Duty: Essays on Epistemic Justification, Responsibility, and Virtue*, Oxford Univer-sity Press.

Ryan, Sharon (2003), "Doxastic Compatibilism and the Ethics of Belief", *Philosophical Stud-ies*, 114, pp. 47-479

Shah, Nishi, and Velleman, J. David (2005), "Doxastic Deliberation", *Philosophical Review*, 114, pp. 497-534.

Steup, Matthias (2000), "Doxastic Voluntarism and Epistemic Deontology", *Acta Analytica*, 15, pp. 25-56.

_____(2008), "Doxastic Freedom" *Synthese*, 161, pp. 375-392.

Weatherson, Brian (2008), "Deontology and Descartes's Demon", *Journal of Philosophy*, 105 (9), pp. 540-569.

Williams, Bernard (1973), "Deciding to Believe", In Bernard Williams (ed.), *Problems of the Se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Institute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joohanlee@snu.ac.kr

‘Belief’ and Epistemic acceptance

Joohan Lee

The ordinary term ‘believe’ is polysemous and thus its meaning varies depending on contexts. Little attention, however, has been paid to its context sensitivity in philosophical discussions, and thereby unnecessary problems tend to be brought about in philosophy. This article explores the different meanings of the term ‘believe’ to serve as a steppingstone to the solving or dissolving of those problems. To begin, it discusses two different mental attitudes ‘believe’ stands for, i.e., belief as an involuntary mental disposition and pragmatic acceptance as a mental action, and then suggests and explicates another mental action ‘believe’ referes to, which I call ‘epistemic acceptance’. It will be revealed that epistemic acceptance is a secondary mental action which is performed in a context where epistemic reason and non-epistemic reason compete each other. Then, attention is given to several questions concerning epistemic acceptance and answers to them are provided. The issue of whether epistemic acceptance is analyzable and of the relation between epistemic acceptance and judgment will be addressed in the course of answering them. Finally, a brief prospect is put forward that distinction of different mental attitudes ‘believe’ stands for will bring a new perspective

to solve some philosophical problem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issue of the nature of epistemic norm.

Key Words: belief, pragmatic acceptance, epistemic acceptance, mental act, voluntariness, judgment